

## 경제

광주·전남 전문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 영창중공업 3년 연속 1위 평가액 500억 이상 3곳 뿐

## 1~5위 전남 건설사 차지

영창중공업(주)이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도양기업(주)은 전문건설 18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에서 수위를 차지하며 2위로 뛰어 올랐다.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2011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500억원 이상인 업체가 3 개사로 지난해보다 1곳 줄어들었다. 300억원 이상도 지난해 11개사에서 10개사로 감소했다.

시공능력평가의 1위는 838억7962만원을 기록한 영창중공업이 차지, 2009년 이후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철강재 설치 업종을 주력으로 플랜트·조선 사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 영창중공업은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823억1136만원)보다 시평액이 소폭 늘었다.

## ■ 2011 시공능력평가 광주·전남 전문건설 상위 10위업체

(단위:천원)

순위	상호	업종	시공능력 평가액	비고
1	영창중공업(주)	철강재설치	83,879,616	전남
2	도양기업(주)	토공	66,434,425	"
3	해동건설(주)	증설	52,492,442	"
4	동아에스테(주)	금속구조장	44,113,102	"
5	성진(엔씨주)	김구조설	42,198,735	"
6	광림토건(유)	토공	39,480,917	광주
7	(주)디우건설	철근콘크리트	36,524,532	"
8	남해철강(주)	철강재설치	33,158,889	전남
9	(주)제일아이엔디	실내건축	32,532,940	광주
10	금능토건(주)	철근콘크리트	31,371,318	전남

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위를 유지했다. 동아에스테(주)은 지난해(565억6000만원)보다 22% 감소한 441억 1311만원을 기록, 2계단 내려갔다.

강구조물업체인 성진(엔씨주)은 421억9874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전남지역 전문건설사다.

6위는 광주지역 1위에 오른 광림토건(유)이 차지했다. 광림토건은 지난 해 306억8585만원에서 88억원(29%) 증가한 394억809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부도사태를 맞은 (주) 다우건설은 365억2454만원으로 1년 새 125억여원 줄어들었다.

이어 남해철강(주)이 331억5889만 원, (주)제일아이엔디 325억3294만 원, 금능토건(주) 313억7132만원으로 10위권에 랭크됐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2위는 토공업체인 도양기업이 차지했다. 도양기업은 지난해(507억 759만원)보다 31%(157억여원) 증가한 664억3443만원을 기록해 4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도양기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에서도 28% 신장, 괄목 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동건설(주)은 524억9245만원으

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위를 유지했다. 동아에스테(주)은 지난해(565억6000만원)보다 22% 감소한 441억 1311만원을 기록, 2계단 내려갔다.

강구조물업체인 성진(엔씨주)은 421억9874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에서 5위까지는 모두 전남지역 전문건설사다.

6위는 광주지역 1위에 오른 광림토건(유)이 차지했다. 광림토건은 지난 해 306억8585만원에서 88억원(29%) 증가한 394억809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부도사태를 맞은 (주) 다우건설은 365억2454만원으로 1년 새 125억여원 줄어들었다.

이어 남해철강(주)이 331억5889만 원, (주)제일아이엔디 325억3294만 원, 금능토건(주) 313억7132만원으로 10위권에 랭크됐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저축銀 구조조정 공적자금 5천억 투입

## 금융위, 특별계정 요청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될 공적 자금이 정부 재정이 5000억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 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천만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을 5000억원(약 3.3%)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저축은

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계정이 7~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2026년까지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 出禁풀려 해외 출장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가 풀려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검찰은 금호석화가 협력업체와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회장을 3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4월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출국금지가 풀립에 따라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사업 검토를 위해 중국 상하이로 떠났다.

/연합뉴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그동안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운영, 공시 등의 활동을 평가해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등급을 매겨왔는데 이를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까지 통합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부분

보다 사회, 환경 부문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분에서 B등급이

이하 기업은 515곳으로 전체의 77.

1%였지만 사회 부문은 558곳으

로 83.5%, 환경 부문은 87.4%에 달했다.

/연합뉴스



광주 신세계백화점 속 문화유원지'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개점 16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백화점 속 문화유원지' 전이 열린 가운데 3일 오후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나명규 작가의 작품 '존재'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상장기업 86% 사회적 책임 "나몰라"

## 575곳 '취약' 4등급 이하

국내 상장기업의 86%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 취약등급'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계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친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성이 그나마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그동안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운영, 공시 등의 활동을 평가해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등급을 매겨왔는데 이를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까지 통합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부분

보다 사회, 환경 부문에 대한 책임 의식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부분에서 B등급이

이하 기업은 515곳으로 전체의 77.

1%였지만 사회 부문은 558곳으

로 83.5%, 환경 부문은 87.4%에

달했다.

/연합뉴스

## 세무조사권 남용 감시 강화

## 국세청, 부조리 공무원엔 무관용 원칙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조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개인이나 법인에도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해 세금추징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투명성 및 청렴성 강화방안'을 마련, 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부산2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과다 수수료 문제 등 최근 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실추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현동 장장의 자정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앞서 지난달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기업 등 외부인으로부터의 향응 및 끌프집대 금지를 주문하고 적발시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조사권 남용에 부조리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기간연장시 외부에서 임명한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징

## 코스피지수

2066.26 (-55.01)

## 코스닥지수

531.91 (-6.15)

## 금리(국고채 3년)

3.82% (-0.05)

## 원·달러 환율

1060.40원 (+9.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천변주유소

불로동 56-3번지  
고급화분유동우체국정품판매, 포인트 적립  
대형비자니스룸 완비  
대표 김남규  
☎062-234-3701

## 진고지

북구 유동 국민연금 건너편  
한방유동오리 백숙, 낙지수육보쌈  
기마술 갈비찜  
☎(062)524-5656

## 유성환경기술

매월동 공구상가 5동 201호  
상하수도 설비 기술자 구인  
(유 경험자우대)급여 상담 후 결정  
☎062-603-1819

## 올리브영

동구 총장로1가  
대표 김 범  
☎010-4082-1307

## Rinnai(린나이무등상사)

동구 학동 시비아스점장 맞은편 허먼시아 입구  
가스 기밀밸브, 순운수기, 전기운수기, 텔레기페  
보일러배관청소, 압소용기구 도·소매 전문  
대표 정 승 채  
☎062-223-3652

## 진영소주방

북구 오치동 상설시장 apt입구  
홍어찜, 각종전문점  
대표 추 명 순  
☎062-261-8652

## 고향국밥

북구 오치동 오지삼익1차 APT 옆  
순대국밥부터 모든 메뉴가  
다 갖추어 있습니다.  
대표 : 흥현식  
☎062-265